

현장속으로

# “취직해서 할머니 모실 겁니다”

광주 전남 포교사단 '소년원 겨울불교학교' 열던 날



광주 전남 포교사단 교도소팀장 이재연 포교사가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처음엔 법회가 지루하고 잠이 오지 않거나 졸리는 것이 어색했어요. 그래도 자주 나오다보니 이제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1월 13~14일 양일간 광주 전남 포교사단(단장 김인수)이 주관한 광주소년원(고통정보산학교, 이하 고통학교) 겨울불교학교에 참석한 하태산(18, 가평군).

태산이는 2년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러 이곳 고통학교에서 교육중이다. 처음 고통학교에 왔을때만 해도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을 찾던중 아버지가 보고 싶어 불교반을 찾았다. 불심이 강한 아버지는 신행생활에 열심이었다. 뒤늦게 만난 부처님을 통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신들도 추스르게 됐다.

그동안 태산이는 고통학교에서 한자 5급, 문서실무 4급 자격증을 획득했다. 지난해에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달 말 고통학교를 퇴원하면 일반 고통학교에 정식 입학해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다.

13일, 창 밖으로 함박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가운데 한글 <전수경> 독경이 시작됐다. 고통 겨울불교학교의 서막이다.

독경하는 아이들의 함장한 손에 간접함이 담겨있다. 한손엔 참회하는 마음, 다른 한손엔 빨리 퇴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합쳐져 애절함으로 다가온다.

이틀간 진행된 겨울불교학교는 '불교예절', '달마가 동쪽으로...' 등의 영화감상, 기초교리, <부모은중경>

## 대부분 결손가정, 법회가 '대화 창구'

108배 · 참선으로 심신청정 기원

“사회,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세요”

등의 강의와 참선, 108참회로 진행됐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란 주제로 열린 고통학교 겨울불교학교에는 18명의 학생이 모였다.

평소 토요일에 10여명 나오던 것에 비해 이번 겨울학교에 두배 가까운 아이들이 참가해 모처럼 법당이 활기찼다.

간간이 포교사단에서 준비해간 과일과 견과류, 음료수가 간식으로 나오고 포교사들과의 상담에는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들이 하소연 하듯 꼬리를 이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없습디다. 그런데 바깥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요. 대부분 결손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붕괴되면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8년 전부터 고통학교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연 포교사는 “고통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며 사회적 모순을 지적했다.

고통학교 종교담당 주유환 선생도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사랑이 부족해 마음을 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종교활동에 나가면 대화를 많이 해요. 특히 불교반은 물집을 앉세우기보다 마음공부를 많이 시켜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포교사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믿었던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이곳으로 들어올 때다.

법회를 통해 마음공부가 잘되어 사회로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만날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하다. 그때마다 허탈감과 퇴굴심으로 몇 달씩 중병을 앓곤 한다. 심성착한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회와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고통학교에서 법회가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만 겨울불교학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며칠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광주전남 포교사단 교도소팀장 이재연이 포교활동화를 발원하며 시작한 새해 첫 행사이기도 하다.

포교사단은 이곳 아이들이 불심을 통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폐쇄된 공간의 한계로 많은 흥미를 끌지는 못해도 방학중 심심하던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새롭다.

겨울불교학교가 끝나면서 포교사단은 이번 열기에 고무되어 “날이 풀리면 사찰순례를 갖자”고 제안했고 학교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직해서 제가 할머니 모실 겁니다. 절에도 다니면서 불자로서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거예요”

불교반 반장을 맡아 첫 겨울불교학교를 보낸 장현석(21, 가평군. 지난해 11월 자중차병비 2급자격증을 획득했고 이달 말 고통학교를 퇴원한다. 현석이는 겨울불교학교를 마치며 발원문을 통해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거룩하신 부처님! 내 마음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고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덩어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공덕을 이웃에게 회향하며 함께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광주=이준영기자

### ■ 광주 고통정보산학교는...

광주 고통정보산학교는 직업훈련소년원으로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비행을 저지른 20세미만의 소년들 가운데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곳이다.

행사편지를 받는 소년교도소와 구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일반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고통학교 전영선 교무계장은 “이곳 아이들은 학교를 퇴원해도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 우리 절 우리 신도

### 함께 나누니 모든게 즐거워요

인천 수미정사 정화원·이연희 보살

1월 15일 관음재일 법회가 열린 날, 인천 수미정사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10여명의 불자들이 뜻을 모아 봉사모임을 결성한 것. 이들은 사찰의 살림살이는 물론 독거노인과 미혼모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발원했다. 정화원(59, 법명 화엄행)·이연희(53, 법명 명지과) 보살은 이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이연희 보살은 수미정사에서 '보시 제일'로 통한다. 이 별칭은 재보 시財布施를 많이 해서 주어지지 않아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나누는 마음 때문에 얻은 것이다. 절에 오면 기도시간 외에

는 제대로 앉아 볼새도 없이 늘 바쁘다. 이 보살의 마음을 본 이라면 누구든지 '보시 제일'이라는데 고개를 끄덕인다. 법당 마당 공양간 어디를 가도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 보살은 다 주고 싶은 모양이다.

“가진 것 없어서 보시하지 못한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아니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거든요. 마음도, 시간도, 자리도, 웃는얼굴도

다 나눌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반면 정화원 보살은 20여명의 화주를 이끄는 일명 화주단 '대행'이다. 아직까 지 신도회가 제 역할을 못해 화주단이 사찰 대소사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정 보살은 사찰에 오는 불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조율하고 절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연희-시간·노력 나누는 '보시 제일'

정화원-사찰 대소사 여법하게 이끌어

주지 종연 스님은 “보 기엔 큰일이 아니지만 정 보살의 일이 절일에서 힘든 일”이라며 정 보살의 공심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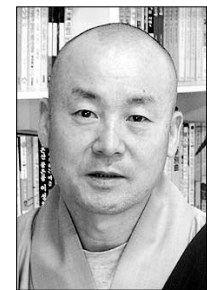
정 보살은 “신심이 깊다”는 표현과 참 잘 어울린다. 매일 아침 금

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절에 나와서 기도한다.

또 잡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참회한다. 언뜻 보아도 재미없어 보이는 일에 정 보살은 푹 빠져 있다.

“절에 나간지 20년이 됐지만 요즘처럼 환희심 나는 때가 없었어요. 수미정사에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인천=박봉영 기자



주선의 말

종연스님 수미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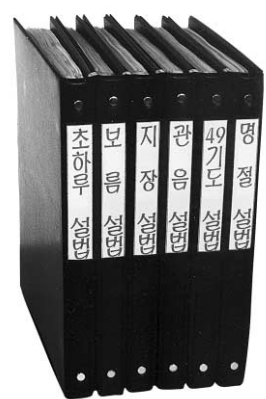
### 한 뜻으로 대중위해 봉사

우리 절은 개원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신도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회 활동을 보완할 반야단과 문화단, 봉사단 등 3개의 화주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정화원·이연희 보살은 이 화주단에서 공심을 갖고 열심히 사찰 일

에 나서고 있는 불자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불교의 현실이 기복에 치우쳐 있다보니, 신도들의 의식수준도 낮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두 보살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들을 아울러 모든 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두 보살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 현대설법

##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불교가 산다



프리즈나(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6권(일반)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천도, 명절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교도소, 경찰서, 거사람회, 보살회, 가족법회, 일요 수요 법회, 학생회, 대학생, 청년회, 공무원, 회사원, 교수 교사 군 불자 법회나 가족 모임, 수련대회 각종 불공과 기도 법문 준비 시간에 다른 불사를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법문 내용에 소홀하지는 마십시오.

주제별 재일별로 독특한 구분 / 자유자재 응용 / 1편 분량 25분 소요 / 경전근거 / 시원한 활자 크기 / 겸친 내용 없음 / 수많은 특별 사례 소개/1편씩 분리 가능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 진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명 법문 / 영험을 건져내는 새로운 눈빛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미가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리즈나>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타차러다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대설법연구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 발송중!